# 올해 광주시 산하 기관장 교체폭 관심

## 광주도시공사·광발연 등 5곳 임기만료

## 임원급 8명도 교체 예정 후임인사 촉각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이사 등 임원급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될 예정이어서 후임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광주시의 각종 정책 및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공기업은 물론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핵심 출연기관의 수장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31일과 6월8일 임기가 끝나는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광주발전연구원 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사장을 선임하려면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공사 및 공단 추천 2명 등이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서류·면접 심사, 후보자 선정 및 추천 등 임명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도시공사의 경우 이미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광주시 고위공무원 출신인 A씨와 현재 국장급 인사인 B씨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올해 임기 만료 기관장 현황

◇공기업

| 명칭 | 이름 | 임기만료일 |
|---|---|---|
| 광주도시공사 | 김영진 | 2011. 05. 31 |
| 광주도시철도공사 | 오행원 | 2011. 10. 15 |

◇출연기관

| 명칭 | 이름 | 임기만료일 |
|---|---|---|
| 광주발전연구원 | 채일병 | 2011. 06. 08 |
| 광주신용보증재단 | 김재욱 | 2011. 07. 31 |
| 광주정보문화진흥원 | 이상길 | 2011. 08. 31 |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원장도 각각 7월31일과 8월31일로 3년 임기가 끝나며,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도 오는 10월15일 임기가 끝난다. 이들 사장 및 원장 자리에도 이미 광주시 국장급 이상 간부나 외부 유명인사들이 후임인사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적에 따라 1년 연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라는 민선 5기의 기치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외부 인재 영입 등 다양한 카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과거 실적 등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 경영·건설본부장과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광주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 수완에너지 전무이사, 광주영어방송 본부장, 빛고을노인재단 효령운영·복지운영 본부장 등 임원급 8명도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美 최첨단 광학소재 업체 RMI社 광주 평동공단에 4000만불 투자

## 야간 투시 렌즈공장 설립

2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야간 투시용 첨단렌즈 생산업체인 미국 RMI사와 광주시가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토마스 프로튼 RMI총괄이사, 강운태 광주시장, 한유봉 RMI회장, 시어도르 앨레켈 딥포토닉스 대표이사. 〈광주시 제공〉

최첨단 광학 소재 기술을 보유한 미국 RMI사가 광주에 진출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RMI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광산구 평동 외국인투자지역에 올 상반기부터 4000만불을 투자해 야간 투시용 첨단렌즈 생산 공장(법인명 피닉스텍)을 설립기로 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라파에트에 소재한 RMI사는 1957년 광부품 제조업체로 설립됐으며, 50년 이상 광학 소재 개발에 전념해온 한유봉 회장이 1983년부터 사업을 이끌면서 적외선 광학용 소재인 징크셀레나이드(ZnSe) 제조 원천기술 확보와 시험생산에 성공했다.

징크셀레나이드는 CO2 레이저, 야시장비, 유도무기, 인공위성 등과 같은 적외선 영역에서 작동하는 장비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학 소재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소재를 상업 생산하는 업체는 미국의 Rohm Haas, II-VI 등 2개사뿐이다. RMI사의 광주 진출은 광주의 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MI사의 한유봉 회장은 "광주에는 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과학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redplane@kwangju.co.kr

## 韓赤, 日지진 모금 213억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는 일본 대지진 관련 모금액이 모금 시작 13일 만인 26일 213억2천800만원을 기록해 한적의 자연재해 관련 모금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최고액은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난 당시 한적이 성금으로 약 4개월간 모금한 193억60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 "영광원전 점검반 지자체·민간 참여해야"

## 원전감시기구 "정부만으론 불안감 해소 미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점검 계획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점검반에 포함된 지역 주민 및 민간 감시기구의 역할이 원전 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28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전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으며 합동점검반을 구성,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영광을 비롯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지진 발생→대형 지진해일 발생(태풍에 의한 것도 포함)→전력차단→원자로 노심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 발생→비상대응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 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회복 차원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이 점검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번 안전점검에 민간기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민간 참여반에게 점검 진행 과정을 수시로 설명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광핵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김용국 국장은 이날 미국 스리마일원전사고 32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원전사고와 시민건강'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그룹이 모두 나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호대책을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9일 오후 3시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전남은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또,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다음달 18일부터 20일 사이 영광원전을 방문해 방재체계와 안전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 빛日만평

- 김종두

어른들 한테 배울게 있어야 말이지

# 무안 '황토랑쌀' 전남 최고 브랜드쌀

## 영암 '달마지쌀골드' 함평 '나비쌀' 등 '10대 브랜드쌀'

무안 '황토랑쌀'이 전남지역 최고 브랜드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무안 '황토랑쌀' 등 10개 브랜드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대한 쌀 품질 평가결과 '황토랑쌀'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암 '달마지쌀골드'와 함평 '나비쌀'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강진 '프리미엄 호평'과 담양 '대숲맑은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암 '하늘아래 한쌀', 해남 '한눈에반한쌀', 장흥 '아르미쌀', 나주 '드림생미'도 고품질 브랜드쌀에 뽑혔다.

무안 '황토랑쌀'은 지난해 전남 10대 브랜드와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선정된 후 철저한 품질 관리로 올해에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 '한눈에반한쌀'과 나주 '드림생미'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고 담양 '대숲맑은쌀'은 품위와 밥맛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처음으로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올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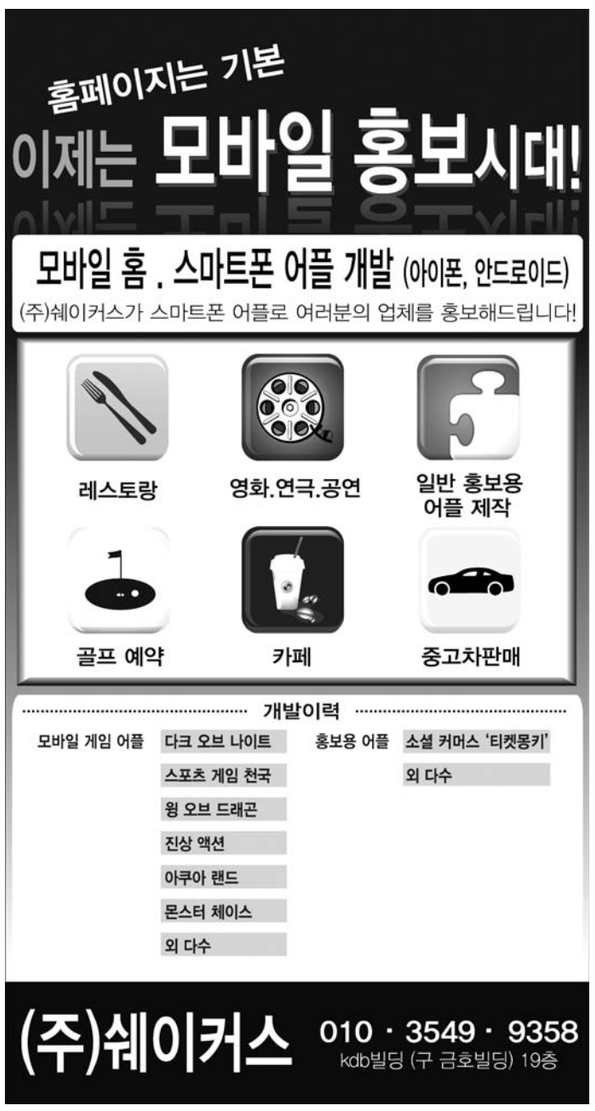
## 1면 '국회의원재산'서 계속

3선의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8억원(4억4000만원→12억4000만원)가량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재선의 박주선 의원과 우윤근 의원은 각각 3억4500만원(17억1700만원→20억6200만원), 6억8000만원(16억600만원→22억8600만원) 가량 늘어났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재선 이상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28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18대 국회에 진입한 이후, 올해 15억9500만원의 재산을 신고, 12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 의원 가운데는 김재균 의원이 18대 국회 등록 당시보다 4억7000만원(9억6300만원→14억33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김영록 의원도 1억8000만원(5억9300만원→7억7300만원)가량 증가했다.

한편, 재선의 강기정 의원은 17대 국회 입성 당시 4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올해 신고액은 7억7400만원으로 당시에 비해 16배 이상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 측은 그동안 세비(월급)를 꾸준하게 저축한 결과이며 후원금 3억원 가량이 신고 재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감안해도 11배 가량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별 것 아닐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 1억원은 하늘만큼 큰 재산"이라며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급속한 재산 증가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